



‘불명예 은퇴 위기’ 파란만장 빅토르 안

러시아 언론 “도핑 의혹에 출전 명단서 제외”

파란만장한 선수생활을 이어 온 ‘소프트록 황제’ 빅토르 안(33·안현수)이 불명예 은퇴 위기에 놓였다.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 3관왕 러시아로 귀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재기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영예와 나라를 모두 경험한 빅토르 안은 도핑 의혹에 휩싸여 조국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 언론은 23일(한국시간) ‘빅토르 안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자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리처드 맥러렌 교수가 주도한 세계반도핑기구(WADA) 보고서가 빅토르 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러시아 언론의 설명이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제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희망선수 500명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조사, 111명을 제외했는데 여기에 빅토르 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IOC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IOC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면, 빅토르 안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파란만장한 선수생활에 또 하나의 장벽이 나타난 셈이다.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까지 빅토르 안은 화려한 자제였다. 주니어 시절부터 ‘될성 부른 떡잎’이었던 빅토르 안은 17세이던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 1000m 결승까지 오르며 당시 황제

로 군림한 김동성의 후계자로 면모를 뽐냈다.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는 ‘황제 대관식’의 서막이었다. 빅토르 안은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했고 이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500m를 제외한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4관왕에 올랐다.

빅토르 안은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1000m와 1500m, 5000m 계주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수확하며 세

을 앞두고 전력 강화를 노리던 러시아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아들인 빅토르 안은 2011년 8월 귀화를 결심했고, 그해 11월 정식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러시아연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전성기 기량을 되찾은 빅토르 안은 소치올림픽에서 500m와 1000m, 5000m 계주 금메달과 1500m 동메달을 품에 안으며 멋진 재기했다.

재기에 성공한 빅토르 안은 모국

러시아가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을 허용해 다시 기회를 잡았다.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이 금지된 후에도 빅토르 안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4년을 준비한만큼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빅토르 안은 올해 유럽선수권대회에서 500m 메달을 따며 평창올림픽 리허설도 마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핑 의혹에 의해 은퇴의 비랑 끝으로 내려갔다.

이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06년 토리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러시아 두마(의회) 의원인 스베틀라나 주로비치는 “빅토르 안이 제외된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나이가 적지 않은 빅토르 안은 사실상 은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CAS를 통해 구제 받는다고 해도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다음 시즌에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여름 빅토르 안은 은퇴와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쉽게 못 하겠다. 언젠가는 그만둬야 하지만, 그 시기를 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바라본다고 치면 (현재가 선수 생활의) 40% 지점이다. 돌아보면 징그럽고 다시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IOC의 공식 발표와 빅토르 안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렸다.

뉴시스

한국 테니스사 새로 쓴 정현

호주오픈 남자단식 16강서 세계1위 조코비치 3-0 꺾어

전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1·세르비아·세계랭킹 14위)라는 산을 넘는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58위)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현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6강에서 조코비치를 3-0(7-6(7-4) 7-5 7-6(3-3))으로 물리쳤다.

지난해 오른 팔꿈치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은 조코비치가 아직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정현의 승리는 이번 대회 대이변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했다.

2년 전 처음 나선 호주오픈 본선 1회전에서 조코비치에 0-3(3-6 2-6 4-6)으로 완패했던 정현은 2년 만에 만난 우승에 화려한 설욕전을 펼쳤다.

한국 선수가 테니스 메이저대회 8강에 오른 것은 정현이 최초다. 이 전까지 한국 선수의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은 1981년 US오픈 여자 단식 이덕희(65·은퇴), 2000년과 2007년 US오픈 남자 단식 이형택의 16강이다.

자신의 어릴적 우승을 꺾고 한국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정현은 경기 직후 플레이어 박스를 향해 큰 절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직후 메인코र्ट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현은 “어떻게 조코비치를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저 기쁘다. 내가 오늘 이길 수 있는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조코비치와 다시 경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한껏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사회자가 노트 끝에서 엄청난 각의 앵글을 만들어낸 것이 조코비치가 아닌 정현이었다고 말하자 정현은 “조코비치는 나의 어릴 적 우상이었다. 어릴 때 조코비치의 앵글 샷을 따라해보려고 했다”며 웃었다.

정현은 3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3-0으로 앞서다가 3-3으로 따라잡힌 장면을 떠올리면서는 “그 때까지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있었기 때문에 3세트를 내줘도 4, 5세트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조코비치보다 어릴 때 때문에 2시간 더 경기할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농담을 던지는 여유를 보였다.

한국말로 소감을 밝히기도 않은 정현은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다. 수요일에 4강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며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정현은 “이런 큰 대회에서 롤모델로 삼았던 선수와 경기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다. 조코비치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것은 맞지만, 승리해서 더 값진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현은 “오늘 승리로 인해 한국에서 테니스 붐이 더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은 나에게 있어 많은 꿈 중 하나가 이뤄진 날”이라고 전했다.

현재 승리를 확인했다는 말에 정현은 “마지막 포인트를 딸 때라며 끝까지 방심을 늦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큰절 세리머니’에 대해 묻자 정현은 “저를 도와주시는 스폰서, 매



22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18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6강 경기. 정현이 노박 조코비치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니저, 팀이 있었다. 또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었다”며 “우리 집 막내인 데도 외국에 나가있고 막내처럼 행동을 하지 못한다. 평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떠오른 것이 ‘큰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 멋진 코र्ट에서 승리를 하면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 후 중계 카메라에 ‘보고있나’ 라는 글귀를 보여주기도 했던 정현은 “‘보고있나’ 라는 문구 위에 ‘캡틴’이라고 썼는데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감성증편 팀이 해체되고 김일순 감독님의 마음고생이 심해졌다”며 “이렇게나마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야간경기를 치렀지만, 정현은 “3회전에서 5세트까지 치렀는데 오히려 조금 더 쉴 시간이 있었다. 앞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다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현은 이달 초 남미프로테니스(ATP) 투어 ASB 클래식부터 네빌 고드윈(43·남아공) 코치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오늘 경기를 앞두고 고드윈 코치가 여태까지 한 것만큼 똑같이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조코비치는 큰 경기 경험이 많아 어떤 리액션을 할지 모르나 내가 같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은 약점으로 꼽혔던 포핸드를 개선하면서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코비치는 이날 경기를 마치고 “정현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정현은 “2016년 부상으로 4개월 동안 경기를 못 뛰었는데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오늘 같은 날을 만들어줬다”고 되돌아봤다.

또 “조코비치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성숙하게 하려고 했다. 프로처럼 행동하고 유망주가 나를 보고 좋은 점만 배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 후 조코비치에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했다. 다음 경기도 잘하라는 덕담을 들었다는 정현은 “나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이다. 아직도 프로가 되는 중일 뿐이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조코비치 “정현, 분명히 톱10 진입할 것”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58위)이 일으킨 이번의 회생양이 된 노박 조코비치(31·세르비아·세계랭킹 14위)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코비치는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6강에서 정현에 0-3(6-7(4-7) 5-7 6-7(3-7))으로 졌다.

2년 전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다. 조코비치는 2016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호주오픈 단식 1회전에서 정현을 3-0(6-3 6-2 6-4)으로 완파한 바 있다.

경기 직후 정현에 한참 동안 축하 인사를 건넨 조코비치는 공식 인터뷰에서도 “정현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 정말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예전보다 훨씬 좋은 선수가 됐다. 의문의 여자 없이 오늘 승리할 자격이 충분했다”고 전했다.

정현은 경기 직후 코트 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현이 어릴 적 우승이었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조코비치와 정현의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조코비치는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하다. 정현이 세계랭킹 10위권 내에 올라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얼마나 성장할지는 그에게 달렸다. 정현이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 주니어 시절부터 ‘될성 부른 떡잎’...17세부터 두각
- 2006년 토리노올림픽까지 세계 최강자로 자리매김
- 이후 빙상계 파벌 싸움·부상·소속팀 해체로 추락
- 2011년 러시아 국적 취득...평창 리허설서 ‘은메달’

계 최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토리노올림픽 이후 빙상계 파벌 싸움에 휘말려 심한 갈등을 겪은 빅토르 안은 부상까지 겹치면서 추락했다.

2008년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해 세 차례 수술을 받은 빅토르 안은 2009년 4월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소속팀이던 성남시청까지 해체되면서 힘든 시기를 겪은 빅토르 안은 2011년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다.

결국 빅토르 안은 국적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출전 의지를 불태웠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2015~2016시즌을 통째로 날린 빅토르 안은 모교인 한국체대를 찾아 훈련했고 2016년 12월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도 참가했다. 지난해 여름과 올 겨울에도 한국체대에서 훈련을 이어갔다.

빅토르 안은 “밭이 보는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나가면 무척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IOC가 국가 주도의 대규모 도핑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켜 길이 막힐 뻔했던 빅토르 안은

를 구성하기로 했다. 23명으로 대표회를 치를 참가국들의 양해가 있었다.

경기당 출전 가능 엔트리는 22명으로 동일하다. 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전 협의 없이 단일팀이 추진되면서 대표팀 안팎으로 시비가 일었다. 더욱이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경기당 최소 3명의 북한 선수를 기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감독의 선수 기용권한을 침해했다. 머레이 감독은 “감독으로서 최강, 그리고 가장 능력치가 높은 선수들을 선택하고 싶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따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감독으로서 내가 전략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선수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명단에 있는 이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북한 선수 12명의 합류 일

여자아이스하키 감독 “팀 전략만큼은 워선 지시 안 따른다”

“위에서 지시 내려와도 전략 등은 내가 컨트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여수선한 여자 대표팀의 세라 머레이(30·캐나다) 감독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레이 감독은 22일 오후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의 단일팀과 관련, 속내를 털어냈다.

“코치로서 당연히 기본이 가라앉을 수 있다. (우리선수) 3명이 못 뛰게 되면 감독으로서 걱정이 된다”며 “상황이 위쪽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못한다. 선수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의 올림픽위원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까지 4차 간 회의를 열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출전을 확정했다.

기존의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을 추가해 35명 엔트리



정은 잡히지 않았다. 어떤 선수가 울지도 알 수 없다.

머레이 감독은 “훈련을 준비할 때, 선수마다 플레이백이 있다. 북한 선수들이 오면 코치와 약 3시간 동안 미팅을 잡았다. 북한 선수마다 플레이백을 짜려고 한다”며 “북한 선수에 대한 임시명단을 만들었지만 그 선수들이 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하다. 북한 선수들도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선수들과 함께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존 경쟁 앞둔 선수들
“모든 것 쏟아부었다”
축구대표팀, 터키로 전지훈련 떠나

러시아로 가기 위한 생존 경쟁을 시작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새해 첫 전지훈련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터키 안탈리아로 떠났다. 유럽과 중동리그 소속 선수들의 차를 불가로 K리그 J리그 위주로 꾸려진 24명의 선수들은 다음 달 4일까지 세 차례 평가전을 통해 조직력을 가다듬는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는 23명으로 제한된다.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등 합류가 확실시 되는 일부 유럽과 선수들과 꾸준히 몸을 만들고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포함하면 터키로 향하는 24명 중 최종 엔트리에 진입할 이들은 많아야 절반 정도다.

미드필더 정우영(비셀 고베)은 “앞으로는 매경기가 중요하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하고 싶다”면서 “유럽과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지만 남은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